

## 중국 중점 문화산업 기업 소개(상하이문광뉴스매체그룹 등 3개 기업)

### 상하이 문광뉴스매체그룹

상하이 문광뉴스매체그룹은 방송, TV,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일체화한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107억위안의 자산, 5,200여명의 근무인원을 갖고 있다. 산하에 상하이인민방송국, 상하이동방방송국, 상하이 TV방송국, 상하이동방TV방송국, 상하이문광인터랙티브 TV 유한공사, 동방망홀딩스, 매주방송TV신문사 및 매체가 주로 투자하거나 주식을 통제하는 동상해국제영상문화유한공사, 상하이방송영상제작유한공사, 동방명주주식유한공사, 상하이국제회의센터유한공사 4개의 회사가 있다. 상하이문광뉴스매체 그룹산하의 상하이 TV재경채널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청대상을 투자자로 컨셉을 잡은 재경류전문채널이다. 상하이 TV재경채널은 매일 19시간을 방송하는 데 그중 생방송이 8시간이다. 내용은 경제, 금융, 무역, 증권투자등 영역을 포함하며 정보, 인터뷰, 전문테마 등 프로그램이 있다. 동 채널은 투자자들이 글로벌시장의 정보와중요한 재경뉴스를 철저히 확보했다. 채널의 프로그램은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상하이 위성TV를 통해 일본에 방송되고 있다.

그룹은 방송TV매체 및 관련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운영한다. (연예, 스포츠, 기술서비스 및 연구개발, 매체 엔터테인먼트투자등)산하의 방송TV매체에는 12개의 아날로그 TV채널이 포함되며 11개의 아날로그방송주파를 갖고 있다. 일당 TV방송량은 258시간이고 방송시간은 214시간, 디지털유료화TV, 광대역인터넷TV, 핸드폰TV와 IPTV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룹은 <매주방송TV>보, <제1재경일보>, <경보>, <상하이TV>, <하하화보>, <OK!>등 신문, 잡지와 뉴스사이트 및 음반출판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그룹은 상시 여자축구, 동방남여농구, 동방남여배구, 동방해변배구 등 7개의 스포츠운동팀을 관리하거나 주요지분을 갖고 있다.

2005년 그룹은 TV뉴스자원, 방송뉴스자원, 엔터테인먼트자원의 통합을 마치고 TV뉴스센터, 방송뉴스센터, 종합예술부, 음악부, 대형행사부를 설립했다. 그룹의 방송프로그램이 상하이지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90.6%를 차지하고 골드시간대는 91.1%를 차지하고 TV프로그램이 상하이지역 골드시간대에서의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한다. 2005년 그룹의 총매출액은 37억 5천 만위안에 이르렀고 2004년에 비해 24%성장했는데 그중 광고매출액은 31억 1천 6백만으로 21% 성장했고 총 매출액의 82.95%를 차지한다. 광고매출의 비중이 하락되고 이익창출구조가 진일보 최적화되었다. 그룹산하의 동방위성TV는 국내에서 모든 직할시, 성도급 도시와

계획열거시를 커버하고 있으며 커버된 인구는 5억명, 일본, 미국, 호주, 마카오 등 국가와 지역에서 방송되고 있다.

그룹의 매체엔터테인먼트산업군은 전면적인 확장을 진행, 프로그램 판권의 판매, 브랜드파생경영, 새매체 서비스의 개발, 연예인 딜러, TV쇼핑 등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그룹도 자본운영의 방식으로 확장 발전되고 있다. 그룹은 전국과 융합하고 전국을 위해 서비스하는 발전전략을 적극 지키며 시장수요에 따라 서비스하고 합작파트너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송을 하기 위해 제작하던 것으로 부터 시장을 위해 제작하는 것을 실현하며 지방방송TV방송기구로 부터 전국 나아가서 전세계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위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발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화출판사

1979년 7월 베이징에서 설립되었다. 신화통신사에 소속되었다. 뉴스, 시사, 정치도서를 주로 출판한다. 국무원판공청의 위탁을 받고 국가급의 중국어, 영어판 <중화인민공화국연감>을 편집 출판했다. <인거(人居)>기간을 출판 발행하고 권위성이 있는 정부기구명목과 국내외공상업명목을 편집인쇄했다. <모택동뉴스공작문선>, <중국기자총서>, <스노문집>, <스메들리문집>, <중외뉴스지식개요> 및 중외명인의 전기등을 출판했다. 이밖에 <글로벌(環球)>등 기간지를 출판한다.

신화출판사는 신화사가 주관하는 사회과학류의 도서를 출판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중앙급대형종합출판사이다. 주로 시사정치, 뉴스, 문화교육, 경제와 내부 참조류 도서 및 화첩 사진을 편집 출판한다.

신화사는 국무원판공청의 위탁을 받고 국가급의 중영판 <중화인민공화국연감>을 편집하여 출판하며 해내외로 공개적으로 발행한다. 신화출판사에서 주최한 <인거(人居)>잡지는 현재 국내에서 거주생활을 다루는 유일한 종합성 간행물이다.

신화출판사와 해내외 뉴스공작자, 촬영가, 번역가와 각계 작가들과 광범하고 긴밀한 업무연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불가리아, 오지리, 러시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국가와 홍콩, 타이완 등 지역의 출판계와 공동으로 출판을 전개하며 판권업무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신화사 건립된 20년래 신화사출판사는 만여종에 달하는 도서를 출판하고 도합 1억 8천만권을 발행했으며 국가, 지방과 업종의 도서상을 수상했다.

## 삼진 만화그룹

삼진(三辰)만화그룹은 이미 8년의 발전 역사를 갖고 있다. 그룹은 재산권이 명확히 분리된 혼합소유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경영분야는 전자음반출판, 음반 프랜차이즈 임대, 애니메이션제작발행, 브랜드(이미지)수권파생, 특허전매 등 다양한 업태를 취급하고 있으며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을 융합, 정보기술을 매개체로 새로운 경제-해피문화산업을 형성했다. "삼진 무비뱅크"와 "블루캐트"는 그룹 산하의 2대 문화교육브랜드이다.

삼진만화의 전신은 삼진무비뱅크 음반전자프랜차이즈임대유한공사(삼진공사로 간칭함)이다. 1996년 "삼진무비뱅크"프로젝트는 문화부 허가를 받고 공청단중앙, 베이징홍상투자건설팅유한책임공사와 중앙방송교육관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했다. 1998년 10월 삼진무비뱅크 음반전자프랜차이즈임대유한책임유한공사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하고 설립되었다. 문화부와 뉴스출판서의 허가를 받고 삼진공사의 음반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총도매와 임대경영권은 "삼진무비뱅크"브랜드의 음반전자제품은 총도매권을 갖고 있으며 주관하고 있는 삼진무비뱅크 프랜차이즈임대전매점은 동시에 "삼진무비뱅크"의 음반제품을 임대, 소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발전 초기 삼진회사는 여러 개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프로젝트를 발기하고 완성했으며 건국 50주년 영화예술정품음반출판발행공정이 포함된다.

블루캐트만화프로그램은 점차 국내 TV에서 대규모로 방송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수출되면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원창작만화 브랜드로 성장되고 있다. 이 기초에서 "블루캐트"는 브랜드수권파생을 시작했고 특허전매망을 확장하면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했다. 블루캐트산업은 그룹, 대리상, 전매점과 생산업체가 1개의 상업경제연합체를 결성했으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원배치, 리스크 분담, 이익공유를 실현했다. "블루캐트"는 만화 이미지를 첫머리로 다업종의 "예술이미지-브랜드상표-생산공급-통합마케팅"의 "산업생태체인"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영상미디어-공업제조-상업소매를 일체화한 복합현대기업을 건설했다.

"블루캐트"는 애니메이션 산업체인의 힘을 빌어 단방향의 산업발전형식을 돌파했다. 밀폐된 사업체인환경에서 콘텐츠 제작, 매체, 채널 등 분야의 자원을 통합했으며 삼진무비뱅크가 음반출판, 프랜차이즈 경영 등 고유자원을 활성화하여 그룹의 2대 문화브랜드를 긴밀히 연결시키면서 시스템화된 합리한 배치를 실현하여 브랜드가치가 충분한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삼진만화는 예술생산라인과 현대산업 공급체인의 무봉연결을 거쳐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원가를 낮추었으며 국산원창작능력을 키웠고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 애니메이션 프로그램과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일련의 상표자산을 극력 발전시키고 문화의 산업화와 산업의 "문화"화를 실현했다. 문화브랜드로 산업 통합을 실현하고 정신문명건설을 물질문명건설로 전환시키고 관련 업종의 개혁발전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21세기 새로운 산업형태를 단조한다. 4정보기술, 매체망, 마케팅망, 브랜드명예, 등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포드사의 공업생산라인과 타일러의 관리모델이 20세기의 공업혁명을 가져왔으며 블루 캐트의 예술생산라인은 21세기의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다